

2019 희곡우체통 2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

<오보>

2019년 희곡우체통의 2차 낭독 선정작은 <오보>입니다. 폐간 위기에 처한 삼류 신문기자의 특종을 둘러싸고, 진실과 거짓이 공방을 벌이는 작품입니다. 사실 작품 밖에서도 비슷한 형국이지요. 우리 사회는 ‘오보’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트라우마가 되고 만 ‘세월호 탑승객 전원구조’를 비롯하여 인터넷과 황색 저널리즘의 밀월 무드 속에 무수한 오보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보’에 책임지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만나기는 힘듭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작품 <오보>는 기차 레일 위에서 자살한 한 여인의 생을 파고들면서 진실을 알려야 할 언론이 추락하고, 세상을 구해야 할 정치가 지옥을 만들고, 사람을 치료해야 할 병원이 사람을 죽이는 풍속도를 박진감 있게 그려냅니다. 타살 같은 자살, 오보 같은 진실을 실감나는 이미지 속에 구축하였습니다. 때로는 이미지와 연극성의 과잉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염려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작가는 말과 글에 대한 책임과 존재의 방식에 대한 사유라는 최종 목적지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차 낭독회 선정작으로 <오보>라는 작품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작품이 제기하는 진지한 문제의식과 연극적 가능성을 관객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희곡우체통은 국립극단이 공연할 문제작을 찾기 위해 2018년에 마련한 상시 투고제도입니다. 동시에 국립극단은 이 제도를 통해 비록 공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성 있는 여러 편의 창작극을 발굴하여 낭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박한 형식의 낭독회이긴 하지만, 이를 징검다리 삼아 작가가 문자로 구축한 세계가 실제 관객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효과와 문제가 있을지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 낭독회를 매개로 가능성 있는 작품이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관객 여러분 역시 낭독회라는 징검다리를 함께 놓아주십시오.

이제 한 돌이 된 2019년의 희곡우체통은 지난해에 벌린 판을 다지면서 더 넓고 단단해지겠습니다.

희곡우체통 우체국장 김명화